

논 평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사태 교섭타결 환영

콜센터 인원 감축 통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사태가 재단, 수탁업체, 노동조합 간의 협의 끝에 4월 27일 저녁 최종 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 박주민 의원, 책임의원 : 이용선, 최기상)는 지난 19일 고공농성에 돌입한 콜센터 노동자와 재단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아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재단 관계자와 면담을 하였다.

면담을 통해 재단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한 달 내에 구성하는 등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면담 이후에도 재단과 노조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재단과 수탁업체 그리고 노동조합 간의 협의를 통해 콜센터 정원은 22명에서 25명으로 조정하고, 5월 1일부로 수탁사가 마련한 공간으로 이전하는 등 이견이 있던 부분까지 조율하여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번 교섭타결은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을지로위원회와 많은 시민단체가 한마음이 되어 합의를 이끌어 낸 고투의 결과물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번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상담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이다.